

건강증진사업의 근거생산과 활용에 관한 연구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본부

1. 연구배경 및 목적

- 오늘날, 건강증진분야에서는 근거를 기초로 한 사업과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근거’와 ‘근거 중심’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
- 건강증진은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환경 속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건강증진 분야에서 인과관계를 간명한 방식으로 밝히는데 제한점이 많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예방정책의 반복가능성 또한 달성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지적된 바 있음. 따라서 건강증진 분야에 전통적인 근거생산 규칙을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건강증진 사업이나 연구를 통해 생산되는 근거의 생산방식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 방안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

2.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건강증진사업의 근거의 생산방식과 생산된 근거를 수집하는 방식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고찰을 하였음.
- 2007년 실시된 건강증진근거생산과 활용에 대한 델파이조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건강증진 근거 활용의 방향을 분석하였음.
- 외국의 건강증진근거 생산과 활용에 대한 지침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 적용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음.

3. 연구결과 및 결론

1) 우리나라의 근거생산 및 활용 현황과 과제

- 우리나라에서 건강증진관련 근거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소수 존

재하지만 건강증진의 광범위한 범위와 다양한 사업형태를 반영하는 근거를 찾기에는 부족함.

- 건강증진의 다학제적인 특성을 감안할 때 다양한 분야에서 찾을 수 있는 건강증진관련 문헌을 검색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건강증진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검색체계가 거의 전무함.

2) 근거생산과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

- 건강증진사업의 근거의 생산범위는 건강증진사업의 범위에 의해 좌우됨. 건강증진사업은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한 전문분야를 포괄하고 있음. 따라서 건강증진의 다학제적인 본질을 반영하는 수집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건강증진과 관련된 분야로는 심리학, 교육, 교통, 범죄, 스포츠, 인구학, 생물 의학 등임. 관련된 분야의 보고서나 문헌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수집체계가 개발되어야 함.
 - 건강증진분야의 다학제적인 특성과 시대적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는 특성 때문에 전문용어의 변화가 많은 편임.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건강증진사업의 근거가 정책입안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와 자료들로 발간되어야 함.
- 인터넷을 통하여 근거기반 건강증진사업의 정보가 항상 제공될 수 있도록 적합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DB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건강증진사업담당자 및 전문가 훈련과정과 대학교의 전공생의 교육과정에 근거기반의 정보들이 포함되도록 함.